

치협 회원 준공기념 및 신년하례식 개최



회관 준공기념 및 신년하례식

2002년 1월 17일 치과신문 31면

치협은 2002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성동구 송정동 소재 치협회관에서 정·관계 및 사회 저명인사들과 치과계 원로 등 치과의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준공기념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 장관, 전용원(田琿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김명섭(金明燮)·김태홍(金泰弘)·김화중(金花中)·심재권(沈載權)·이재정(李在鎭) 의원, 이경호(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 윤흥렬(尹興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차기회장, 申相珍(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최환영(崔煥英) 대한한 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 동안 의약분업사태해결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힘써온 金元吉(김원길) 보건복

지부 장관을 비롯, 정관계 및 의료계의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사회에선 의사나, 정치인 등 과거 존경받던 직업군이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미 치과계 서로존중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치과의사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元吉(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단체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정관계 인사가 이렇게 대거 참석한 일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는 이기택 협회장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치하하고 "정부는 올 한해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무료보철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며 치과계가 이를 위해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 장관은 "치과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정·관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치과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회관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동안 공사비 17억여원을 들여 지상3층 건물을 5층으로 증·개축되었으며, 이날 회관입구에서 준공 기념식이 거행됐다.

치협, 적십자상 수상
장애인사업 공로 인정



「장애인먼저, 생각아니라 행동입니다」
제6회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

시 2001.12.10(화) 2시 16.30.13.00 장소:치과1교수강의실 4층 401호(장애인, 장애인복지팀 4층 402호)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李壽成·이하 장애인먼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6회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치협이 대한적십자상을 수상했다.

장애인먼저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6회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장애인먼저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먼저라는 실천운동 캠페인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 단체 중 우수단체를 선정, 수상하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전국 장애인치과 진료망 구축, 각종 장애인 관련 캠페인 실시, 장애인 무료치과진료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치협을 대표해 상을 수여 받았으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애인먼저 이수성 상임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 개방 파고름 넘자”
치협 WTO대책위원회 구성



2005년 국내 의료시장개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치협은 범치과계 대표로 WTO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월 8일 새로 증축된 회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결과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WTO 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을 선임했다. 대책위는 치협 임원으로 치무, 공보, 기획, 섭외이사 등 4명과 치과병원협회, 치대 학장협의회, 대한치과 의료관리학회의 추천인사와 개인가 대표 등 치과 각계의 인사를 포함해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치협은 WTO대책위가 구성되면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자분을 앞세운 외국 치과병원으로 인해 치협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대책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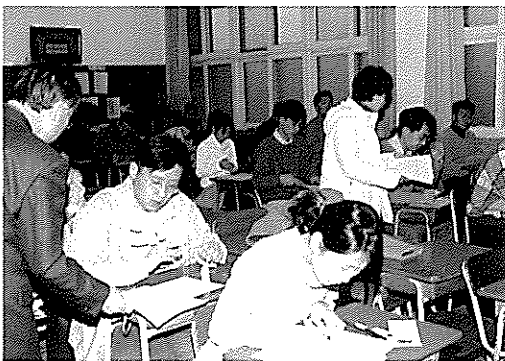
는 계획이다.

鄭대책위 위원장은 “국내 치과의료환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정말히 분석해 국내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타 의료단체와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뉴라운드) 회의결과 2005년까지 전세계 각국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완결시켜야 하며, 이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어느 한 부분만을 예외로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미 전세계 144개 회원국 중 49개 나라가 치과서비스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오는 6월말까지 양허요청안을,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 뉴라운드 도하개발의 치과서비스분야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항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인 원격진료 문제와 국내환자의 해외국에서의 진료문제인데, 치과시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가장 중요한 대응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시험제 2005년 도입된다.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安 통과



외국유학 치과 의사·약사에 대한 예비시험제가 오는 2005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또 치과 의사와 한의사 전문의는 2008년까지 1차기관에서는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유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되 개정 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따라서 예비시험제는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면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남미 볼리비아 등지의 검증 안된 외국치대 졸업생의 대거유입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응책이 된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외국치대 졸업생 문제를 해결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까지 제도를 추진하는 집념을 보여왔다. 한의사협회와 공동추진 했던 전문 치의·한의학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 는 일단 7년간인 2008년 12월 31일 까지만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일단 표방금지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영구적인 전문치의제 1차기관표방금지는 현실적으로 전문의 취득자들에 대한 과잉 규제와 의과와의 형평성문제 등이 있어 위헌소지가 확실한 만큼, 한의협과 공조를 통해 의료법 부칙 개정을 다시 추진, 영구적인 표방금지로 못 박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 1월 15일 서울 잠실고에서 제54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 치뤄졌으며, 1060명이 접수하고 1014명이 응시했다.